

	한글킹제임스성경	개역성경/개역개정판	교리상의 오류
눅 17:36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없음	재림에 대한 근거 구절을 제거하여 믿지 못하게 하였다.
눅 23:17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없음	필사본의 증거들을 배제한 채 한 절 전체를 삭제했다.
눅 23:42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인 “주”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시켰다.
눅 24:51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팔호로 묶고 고대 사본에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했다.
요 1: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신)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요 1:29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율법에 따른 동물의 희생제사로는 불가능하지 만(히 10:1,4,11),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말씀을 삭제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진리를 제거하고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히 4:6 참조).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삭제하고 단지 믿으라고 변개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을 가리고 있다.
요 6: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감추었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랴.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지상에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거했다.
행 1:3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무오한 증거”를 삭제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확실한 것도 틀릴 수 있으나 무오한 것은 틀릴 수 없다.
행 8:37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함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삭제했다.
행 15:34	실리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없음	성령의 역사에 따라 실리가 머물게 된 사실을 제거하여 전 후문맥이 모순되게 만들었다.
행 17:22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메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나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혜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미신적이라는 지적한 말씀을 삭제하고 종교성이 많다고 미화했다.
행 28:29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없음	번역자들의 인간적 편견에 따라 한 절 전체를 삭제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거했다.
롬 14:10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급의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거하고, 모든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 즉 백보좌 심판으로 왜곡했다. (롬 1:32; 2:3 참조)